

도내 중소형 휴대폰 판매업자 울상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 카드사와 연계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따라

도내 중소형 휴대폰 매장 업자들이 울상을 한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으로 일반 매장과의 보조금 차별이 줄어든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카드사를 연계한 청구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 모고 있다.

실제로 한 통신업체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쉽고 가격비교가 용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일반 휴대폰 매장 업주들은 불만소리를 내고 있다.

한 휴대폰 매장 업주는 “개인 매장의 경우 온라인에 대응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중소 유통업자의 경우 미진율이 더욱 높아지면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진하는 추가 할인 혜택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통해 카드사와 제휴하는 등 편법을 쓴다면 일반 매장을 속수 무책으로 한다. 이러한 우회적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휴대폰 다단계 업체 때문에 골머리다.

휴대폰을 변경하면 매월 일정액을 넣어준다는 다단계 영업 방식에 많은 지인들이 물어온다.

전주시 서신동에 일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라고 설명해도 도통 들어먹질 않는다”면서 “이래저래 갈수록 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전국 주요 거점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

국토부, 3차 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서비스 비율 60%까지 확대 예상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철도 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기존 철도망

의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올 연말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한다.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는 고속화철도(200km/h 이상)

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2025년 까지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 등 총 70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철도망이 확충되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46%에서 60%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 항공기를 운영하게 됐고 2016년 하반기 추가 항공기 도입을 통해 총 17대의 항공기를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기령이 짧은 최신 기종 항공기 도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항공기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한 국제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항공여행 대중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미얀마·베트남 시장개척 ‘성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흥용웅, 이하 경진원)은 미얀마와 베트남 시장개척을 성황리에 마쳤다.

경진원은 도내 기업 특장차, 도로교통, 건설기계 분야 등 10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현지 시장개척활동을 펼쳤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방문해 실질적인 결과와

수출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했다. 미얀마의 경우 2012년 시장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수입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 도내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방문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4에서 이번 방문을 집중보도를 하는 등 도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도내 기업들은 현지 상담회를 통해

상담액 1,540만불, 현장계약 20만불을 달성하기도 했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미얀마는 아시아 시장의 신성장으로 시장 선점의 좋은 기회이며, 선진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의 우수제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을 통해 전북 수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업체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어업인 신청품목 34개와 자체 모니터링 품목 4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개 품목이 피해지원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17일부터 8월 16일 까지 해당 시·군·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진수 기자

전북은행, 장애인 가족사진 촬영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태)은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현숙)과 함께 ‘2016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사업선정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촬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리적·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 많은 도내 장애인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가족의 행복감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가족사진 촬영은 7월말까지 시·군 장애인복지관 및 단체에 찾아가는 스튜디오를 오픈해 진행되며, 사진촬영은 네이버 청년작가 1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오준규 사회복지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맡았다.

편의시설 부족과 장애인들의 많은 움직임 등으로 일반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어려웠던 장애인가정의 눈높이에 맞춰 촬영이 완료된 사진은 보정 및 현상작업을 거쳐 고급액자로 제작되어 9월 중에 각 가정에 전달된다.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오준규 사회복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능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도내 장애인가정들이 가족사진을 통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금값이 되어가는 삼겹살 흥가철을 앞두고 삼겹살 선호가 높아지면서 삼겹살 가격이 두 달 만에 60%나 폭등하고 있는 최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이 판매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세 번째 신규 항공기 도입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이 올해 세 번째 신규 항공기를 도입 했다.

이스타항공은 17일 신규기종 항공기 1대를 추가로 도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보잉737-800(189석) 기종으로, 등록기호 HL8057을 달고 국내선 운행 후 오는 7월 20일부터 운항하는 인천 후쿠오카 노선 등 국제선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16대의 (B737-700)기종 3대, B737-800기종 13

대) 항공기를 운영하게 됐고 2016년 하반기 추가 항공기 도입을 통해 총 17대의 항공기를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신광영기자

도내 건설업체, 공사비 압박 심화 전망

건설공사비 지수 2개월째 상승

도내 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비 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재비·인건비 등을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가 2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레미콘 수급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레미콘 수급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4월 상승폭에는 열연후판, 강판(3.99%), 철근(6.77%), 강선(3.11%), 표면처리 강재(2.53%) 등

철강제품의 강세가起到了。

특히 레미콘 가격도 1.58% 상승했고 종유(5.55%), 경유(0.37%) 등 건설기계 장비·연료 가격도 오르면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레미콘 수급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따라서 새민금방조제 전 구간의 지적공부 등록으로 외과시설 대역사의 종지부를 끊게 되었다.

새민금방조제 1,2호 구간은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890,731.3m³)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1,688,883.2m³)로 결정되었다.

사업단에서 관리중인 3·4호 방조제는 지난 2010년 군산시(4,491,642.8m³)로 등록되었다.

새민금사업단 관계자는 “시설물 등록과 관리청 이관 등 신속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으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차질없는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